

유럽 출판물에 나타난 儒學과 退溪學에 관한 記述**

잉거보르크 괴텔 (Ingerborg Göthel)*

李退溪가 살았던 시대 —16세기의 초기 70년간—은 한국인들의 길고도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격동기였다. 그 당시의 조선왕조는 초기의 王들, 특히 世宗大王과 같은 유능하고 다재다능했던 위대한 王들로부터 여전히 은혜를 입고 있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당시의 70년간은 지적 생활에서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특징지워진다. 退溪가 아직 어렸을 때인 1505년에 花潭 徐敬德(1489~1546)은 그의 저서들을 펴냈으며, 이로써 소위 『철학의世紀』가 시작된다.

그러한 철학적 개화의 세기는 新儒學의 형이상학을 완전히 탐구한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 退溪 李滉뿐만 아니라, 동시대 인물로 그와 긴밀히 협력했던 秋巒 鄭之雲(1509~61)을 배출해 냈다. 그들의 업적은 高峯 奇大升(1527~72)과 일반적으로 退溪에 필적하는 가장 위대한 한국의 儒學者로 잘 알려진 栗谷 李珣(1536~84)에 의해 날카롭게 비판되었다. 요즘말로 말하면 그들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철학적 문제들에 관해 심한 불일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退溪와 秋巒은 네개의 기본 덕목(四端 : 惻隱·羞惡·辭讓·是非 —인도주의·성실·

* 독일 훔볼트대학 교수

** 원제: On the Description of Confucianism and the Doctrine of Yi Hwang in the 1st Euro-linguistic Publications about Korea.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60호(1988) 게재 논문

중용·통찰)들은 理의 발현이며, 일곱개의 감정(七情 : 喜怒哀懼愛惡欲—기쁨·분노·고통·공포·사랑·미움·정욕)들은 氣의 발현이라 보았다. 그러나 栗谷과 高峯은 완전히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理와 氣라는 이원적 요소가 별개로 작용한다는 생각에 반대했으며, 그 양자가 인간의 마음속에 같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결코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이것은 율곡이 退溪를 포함한 당시의 新儒學子들간에 이단으로 배척되었던 陽明學 위에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정립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반되는 견해가 결국 철학적 사유의 두 유파를 성립시켰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지적 생활의 풍요함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극히 대립되는 당파의 형성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16세기의 한국의 지적 생활의 높은 수준 —나의 논문의 앞부분에서 약간 언급했을 뿐인— 이 19세기 말경에 살았던 한국 학자들의 가슴속에 무엇을 남겼으며, 19세기말의 한국 학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유럽인들이 한국에 관한 최초의 유럽언어로 쓴 책들에 무엇을 반영시켰는가를 알아보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나는 退溪가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16세기 한국의 발전된 지적 생활이 그러한 책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더욱 큰 흥미를 느낀다. 그러한 출판물들이 높은 수준(지적 생활의)을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함에 있어 우리는 그 출판물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에 관한 책이 거의 아무것도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발간된 출판물들은 한국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실제로 매우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출판물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저자들의 정체와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와 그들이 그 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그들이 접근 가능했던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잃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인인 에른스트 오페르트는 노골적인 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왔다. 그가 라이프찌히에서 1880년에 발간한 『닫혀진 나라』라는 책에서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國民의 歷史』 가운데서 조선왕조의 초기 200년간은 행복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공표할 만큼은 알고 있었다.(p.62) 그러나 그는 한국의 지적인 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퍼시벌 로웰은 1885년 런던에서 출판한 그의 책 『朝鮮,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儒學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韓國은 모든 것을 中國으로부터 전수받고 그 자신만의 것은 결코 성취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p.89).

앵거스 해밀턴은 1904년에 독일어 번역판으로 출간한 『韓國, 새벽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儒學을 묘사하기를 종교와 祭式이라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학이 확고히 성립되자마자, 중기부터는 그 가르침들이 완고한 주장, 인내심의 결여와 완전히 잘못된 敎義의 극단을 옹호하기 위한 냉혹한 박해로 점철되기 시작했다>>(p.233).

그리고 허버트는 1906년에 출간한 그의 473페이지짜리의 논문 『韓國의 과거』에서 다음의 것만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儒學 古典의 통달에 교육이 크게 관련되며, 비록 순수한 교육 관청은 없으나, 서울에 있는 成均館, 혹은 서당들은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가 영국 예술의 중심이듯이, 한국의 교육의 중심이라 지칭할 수 있다>>(p.338).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는 1892년에 최초로 발간한 그의 논문 『한국 隱者의 나라』에서 16세기 한국의 풍요한 지적 생활이나 退溪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儒學을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학설로 기술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5세기 초기부터 儒學이 완고함과 인내심의 결여에 도달하기 전까지 儒學은 번창했다>>(p.80). 그는 그의 책의 다른 부분에서 유학 안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개념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시 위의 견해를 되풀이 하고 있다.

앞에 나온 저자들 중의 몇몇은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들이 그들 자신이 쓰고 있는 나라에 관해서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머 허버트는 韓國에 꽤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학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았으므로 용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1905년에 간행한 2권의 한국의 역사서를 쓸 때, 그에게는 儒學, 退溪의 장점, 혹은 적어도 16세기 한국의 다양한 지적 생활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그가 말해야만 했던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귀를 기울여 보자. «1518년에, 太祖는 왕즉이 아닌 반역자 이인임의 아들이며, 모반의 결과로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역사책이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왔다. 왕은 실수의 訂定을 요구하기 위해 즉시 중국 왕실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황제는 다음 판에서 그것이 정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왕의 스승인 한국의 孔子라 불리는 조광조는 왕에게 불교와 무속은 다 같이 무익하다고 말했으며, 점쟁이와 무당의 본거지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것은 수행됐으며, 그는 禮曹判書의 칭호를 받았다»(p.329).

이것이 한국 역사에 관한 두 권의 책에서 그가 말해야만 했던 주제였다.

기독교인인 저자들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여러 측면을 다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 관해 많은 것들을 기술한 『창고』라는 잡지의 내용 역시 별로 나올 것이 없다. 그러나 잡지의 간행 초기 6년 —즉 1892년부터 1897년간— 동안 나온 모든 책들 가운데 儒學에 대해 다룬 것은 단지 1895년 11월호 뿐이었다. 비록 한국의 儒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그 4페이지짜리 글 중 앞의 반 정도는 단지 공자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반은 儒學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 『韓國』이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退溪와 같은 위대한 유학자들이나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王立 아시아 學士院 한국지부의 화보에는 허버트가 쓴 한국에서의 儒

學에 관한 다양한 관찰을 포함하고 있는 논설이 실렸다. 그러나 그 글은 한국에서의 儒學의 진정한 역할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기술도 없다. 게다가 한국의 儒學을 영국의 교회와 비교한 것은 역사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종교 체계에서 많은 것을 빌려왔다. 儒學 숭배는 그 시대가(중국에서) 시작된 조금 후에 바로 한국으로 도입됐다. 그것은 기독교가 처음 영국으로 도입된 것과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교가 한국에 끼쳤던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변화를 영국에 가져왔다. 有史 이전 영국의 드루이드¹⁾의 의식과 한국 야만족의 미신은 매우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모든 드루이드적 체계를 몰아낸 반면 유학은 결코 한국의 미신을 종식시킬 수 없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종교적 믿음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Vol. I, p.35)

주로 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발간되었던 한국 잡지에 실렸던 논설은 조금 나은 편이다. 1917년 7월판은 『孔子 숭배』에 관해 일반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숭배 의식이 일년에 두 번씩 한국에서 거행된다는 사실도 덧붙이고 있다.

東아시아권 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李滉을 소개한 최초의 인물은 — 적어도 내가 보았던 자료들로 미루어 보건대— 제임스 스카쓰 게일이었다. 1972년 서울에서 출판된, 그가 1936년에 쓴 『韓國人の 역사』는 다른 점에서도 그러하나, 이런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李滉을 중요한 유학자나 혹은 그가 흔히 그렇게 불렀던 한국의 孔子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제임스 스카쓰 게일은 그를 그의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보았으나,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400년 후에(1550) 隱者 李(Yi)에 관해서, 당시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李滉은 청평 언덕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Druid ; 고대 Gaul 및 Celt족의 사제(예언자, 승려, 시인, 재판관, 요술사 따위도 포함)

<그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곧바로 관직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화로웠으나, 그는 그것을 버리고 그가 37년간 수도한 이 언덕들로 왔다. 그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으나 그의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결함을 찾아내려는 많은 말과 글들을 보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우월했다. 세상에서의 최상의 제의를 거부한채 삶을 살아간 것은 그가 가장 희귀한 종류의 인간이라는 증거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명성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선택하려고만 했다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도 명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적 위대성으로 인해 그는 그렇게 했으며, 초야에 묻혀 결코 꿈꾸지 못한 기쁨을 누렸다. 그의 비할 바 없는 가치는 얼마나 존경스러운가!>

李滉은 그의 말을 다음과 같은 시로 끝맺고 있다 ;

<강 저편 너머로, 그 언덕들이 떠오른다.
내 사다리는 그 어지러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리
시냇물이 찰랑거리는 곳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이 廬山 언덕에 대해 말한다.
여기서 그 大家는 자그마한 발을 갈았다.
달이 모든 빈 하늘을 채우듯이
그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다.
거미집이 훗날 흔적을 남기지 못하듯이
세상의 영광은 그에게 그러했다.
이제 누가 그의 얘기를 쓰겠는가!
그의 꾸밈없는 삶의 영상이 너의 눈에 떠오르지 않느냐?>»
(pp.191-92)

이 단 한번의 언급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전부이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이다.

1945년 이후의 유럽언어권 문학에는 급진적인 변혁이 없었으므로, 오늘날에도 16세기 한국의 다측면적인 지적 생활에 관해 알려진 것이 극히 조금밖에 없으며, 그 결과 중요한 학자인 李滉 역시 마찬가지로

말해야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退溪學에 관한 계속되는 會議가 이런 상황을 개선시켜 주리라는 정당한 희망을 소중히 해야 할 것이다.

(구 자 속 譯)